



하나님의 법

hananimuibep.org

오늘의 기독교인을 위한 하나님의 법

hananimuibep.org

부록 8a: 성전을 필요로 하는 하나님의 법

이 페이지는 예루살렘에 성전이 존재할 때에만 순종할 수 있었던 하나님의 법들을 다루는 시리즈의 일부입니다.

- [부록 8a: 성전을 필요로 하는 하나님의 법](#) (이 페이지)
- [부록 8b: 제사 — 오늘날 지킬 수 없는 이유](#)
- [부록 8c: 성경의 절기들 — 오늘날 어느 것도 지킬 수 없는 이유](#)
- [부록 8d: 정결 법 — 성전 없이는 지킬 수 없는 이유](#)
- [부록 8e: 십일조와 첫 열매 — 오늘날 지킬 수 없는 이유](#)
- [부록 8f: 성찬 예식 — 예수의 마지막 만찬은 유월절이었다](#)
- [부록 8g: 나실인과 서원 법 — 오늘날 지킬 수 없는 이유](#)
- [부록 8h: 성전과 관련된 부분적·상징적 순종](#)
- [부록 8i: 십자가와 성전](#)

서론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법 가운데 일부는 오직 한 특정한 장소, 곧 그분이 자신의 이름을 두시기로 택하신 성전에서만 시행되도록 정하셨습니다(신명기 12:5-6; 신명기 12:11).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많은 규례들 — 제사, 예물, 정결 의식, 서원, 레위 제사장의 직무 — 은 실제 제단, 아론의 후손인 제사장들, 그리고 성전이 서 있을 때에만 존재하던 정결 체계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선지자도, 심지어 예수조차도, 이 계명들이 다른 장소로 옮겨지거나 새로운 상황에 맞게 수정되거나 상징적 관습으로 대체되거나 부분적으로 순종될 수 있다고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참된 순종은 언제나 단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행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순종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에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며,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라”(신명기 4:2. 또한 신명기 12:32; 여호수아 1:7 참조).

상황의 변화

서기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이후,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이는 법이 변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 하나님의 법은 여전히 완전하며 영원합니다 —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특정한 계명들을 수행하기 위해 요구하신 요소들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성전도 없고, 제단도 없으며, 성별된 제사장도 없고, 붉은 암송아지의 재도 없는 상황에서, 모세와 여호수아, 다윗, 히스기야, 에스라, 그리고 사도들의 세대가 충실히 순종했던 것을 그대로 반복하는 것은 문자 그대로 불가능합니다. 문제는 의지가 아니라, 불가능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 문을 닫으셨으며(예레미야애가 2:6-7), 어떤 인간도 다른 길을 만들어낼 권한을 갖지 않습니다.



서기 70년에 두 번째 성전이 파괴되는 모습을 그린 프란체스코 하이에즈의 그림.

창작되거나 상징적인 순종의 오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삶의 요소들을 회복하려는 많은 메시아닉 운동과 단체들은 이러한 법들의 축소된 형태나 상징적 형태, 혹은 재구성된 형태를 만들어 왔습니다. 그들은 토라에 명령되지 않은 행사를 열고, 한때 제사와 제사장직, 거룩한 제단을 필요로 했던 것을 대신하기 위해 “절기 리허설”이나 “예언적 절기”를 만들어 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간의 창작물을 “순종”이라 부릅니다. 의도가 진실해 보일 수는 있으나,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모든 세부 사항이 명확할 때, 부분적 순종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통곡의 벽으로도 알려진 서쪽 벽은 서기 70년에 로마에 의해 파괴된 예루살렘 성전의 잔존물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이 금하신 것을 하려는 우리의 시도를 기뻐하시는가?

오늘날 널리 퍼져 있는 가장 해로운 생각 가운데 하나는, 성전에 의존하던 계명들을 우리가 “최선을 다해” 지키려 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믿음입니다. 마치 성전의 파괴가 하나님의 뜻에 반해 일어난 일이고, 우리가 상징적 행위를 통해 그분께 어떤 위로를 드릴 수 있는 것처럼 여기는 것입니다. 이는 심각한 오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즉흥적인 시도를 필요로 하지 않으십니다. 상징적 대체물도 필요로 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정확한 지시를 무시한 채 우리만의 순종을 만들어낼 때, 하나님은 그것으로 영광을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법들은 그분이 택하신 장소에서, 그분이 세우신 제사장들과, 그분이 거룩하게 하신 제단 위에서만 행하라고 명령하셨다면(신명기 12:13-14), 그것을 다른 곳에서, 혹은 다른 형태로 행하려는 시도는 헌신이 아니라 불순종입니다. 성전은 우연히 제거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결정으로 제거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중단시키신 것을 우리가 다시 만들어낼 수 있다고 행동하는 것은 신실함이 아니라, 주제넘음입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여호와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심과 같이 기뻐하시겠느냐? 보라,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사무엘상 15:22).

이 시리즈의 목적

이 시리즈의 목적은 이 진리를 분명히 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계명도 거부하지 않습니다. 성전의 중요성을 약화시키지도 않습니다. 어떤 법을 지킬지 말지를 임의로 선택하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율법이 실제로 무엇을 명령했는지, 과거에 그 규례들이 어떻게 지켜졌는지, 그리고 왜 오늘날에는 지킬 수 없는지를 정확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추가나 변형, 인간적 창의성

없이 성경에 충실했 것입니다(신명기 4:2; 신명기 12:32; 여호수아 1:7). 모든 독자는 오늘날의 불가능성이 반역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요구하셨던 구조의 부재 때문임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기초부터 시작합니다. 율법이 실제로 무엇을 명령했는지 — 그리고 왜 그 순종이 성전이 존재하던 동안에만 가능했는지를 살펴봅니다.